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서남전선지구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4군단 사령부관하 군부대들을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서남전선지구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4군단사령부관하 군부대들을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최전방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403군부대관하 1대대와 4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 높은 산발들과 험한 령들을 넘으시어 대대들에 도착하시자 군인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터쳐올리며 혁명의 최전방에 최고사령부를 두시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해 주시는 백두의 천출명장을 뜨거운 걱정속에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1대대와 4대대의 군인들이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생안결과 자동보충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4대대의 전투진지들을 시찰하시면서 싸움준비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총대맛, 진짜전쟁맛을 보여준 군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공화국영웅을 배출한 구분대군인들이 보고싶어 찾아왔다고 하시며 그들의 군공을 거듭 치하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관하중대의 병실과 세목장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세심히 헤아려주시였다.

군인들이 최고사령관이 왔다고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다고, 지휘관들이 군인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잘 돌봐주어 그들이 건강하고 광만에 넘쳐 군무생활을 해야 자신께서도 시찰의 길을 걷는 보람이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구분대의 전투진지들을 지형지물과 싸움준비의 견지에서 보아주시어 최고령도자께서는 구분대의 현 배치상태가 전술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대담하게 새로운 위치에 이동전개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1대대관하 중대의 병실, 교양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최전방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688군부대의 전방지휘소를 시찰하시였다.

전방지휘소에 오르신 최고령도자께서는 남조선괴뢰군 연평도서방어부대의 증강배비된 역량과 기재들의 배치상태를 료해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최전방일대의 광활한 방어전연들과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적들의 새로운 침략전쟁준비로 하여 전쟁의 검은구름이 밀려오는 남녘땅을 바라보시면서 지형지물과 군부대의 역량배치상태, 경계군무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조선로동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정을 안고 방어지대들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

켰으며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제때에 격파분쇄할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병사들이 서리발비긴 멸적의 총검을 억세게 틀어잡고 최전연을 튼튼히 지키고있기에 우리 혁명위업과 사회주의조국은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적들의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방어전역을 철용성같이 다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바람세찬 산중턱에서 쥘기밥으로 점심식사를 하시고 최전방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493군부대관하 대대를 찾아 시찰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관하 해안포대대감시소에 오르시어 지적에 있는 백령도를 바라보시면서 경계군무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군부대의 화력타격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으신 최고령도자께서는 육안으로 뚜렷이 보이는 백령도에 도사리고있는 남조선괴뢰군 6해병터단의 배치상태를 료해하시시고 적들이 기도하고있는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부대가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최근 적정에서의 변화는 없는가, 전투기술기재와 역량배치는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해 물어주시고 앞으로 화력밀도를 더욱 높일데 대하여서와 현대전의

요구와 변화되는 적의 배치상태에 맞게 화력임무분담과 기재리용에 대한 방안을 끊임없이 수정보충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대대관하 2중대 1포 군인들의 화력복무훈련을 지도하시였다.

멸적의 포란을 장란하고 명령을 기다리는 군인들의 미더운 모습을 만족하게 바라보신 최고령도자께서는 전시에는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 영웅이고 애국자이지만 평시에는 훈련을 잘하는 군인이 영웅이고 애국자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훈련을 드세게 강도높이 진행하여 모두가 뿔뿔 나는 싸움군들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훈련을 진행한 군인들이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에서 영웅한 조선인민군 포병의 본때를 보여준 전투참가자들이라는 보고를 받으신 최고령도자께서는 장하다고, 적들의 거동을 순간도 놓치지 말고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가 싸움이 일어나면 다시금 멸적의 명종포성을 울리라고 하시며 그들을 고무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최전방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641군부대관하 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대대의 군인들이 조국보위성전에서 자랑찬 위훈을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생안결과 자동보충, 기관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교양실, 침실, 식당 등 문화교양 및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지휘관들이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말씀을 언제나 명심하고 병사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이 악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구분대가 장비한 전투기술기재들을 보아주시어 최고령도자께서는 군인들이 적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자나깨나 발사직전의 총탄과도 같은 최대의 격동상태를 견지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서남전선 지구에 위치한 군부대들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조선로동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목숨바쳐 사수하며 혁명적대고조를 강력한 군력으로 굳건히 담보하기 위해 모든 작전지역들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는데 대하여 다시금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적들의 무모한 침략도발광란에 의해 서남전선지구는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열점지대라고 하시면서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된 조건에 맞게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있다가 적들이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조국의 바다에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원수의 머리우에 강력한 보복타격을 안기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우리의 최고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자들은 이 땅, 이 하늘아래 살아숨쉴 곳이 없게 될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

우리의 가슴아픈 애도기간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감행되는 리명박역적패당과 날강도 미제의 화약내풍기는 전쟁연습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보복일념은 하늘끝에 닿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리명박역적패당은 또다시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꺼리낌없이 저지르고있다. 그것이 바로 다치면 터질듯 한 전쟁전야의 정세를 조성해놓고 그것도 모자라 괴뢰군부대들에서 벌리고있는 우리 최고존엄에 대한 로골적인 중상모독행위이다.

최근 인천시에 주둔하고있는 괴뢰군부대의 내부반서만도 벽체와 문짝들에 감히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제멋대로 걸어놓고 그 아래우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글까지 써붙이는 천하무도한 망랑짓을 벌려놓고있다.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무분별한 이 모든 중상모독행위는 오직 리명박역적패당만이 벌일수 있는 반민족적인 히스테리적광기이며 나라의 정세를 더는 수습할수 없는 막다른 지경으로 몰아가는 무지한 쟁쟁집단의 새로운 특대형도발행위이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역적패당의 중상모독행위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괴뢰특해공군부대들에서 잇달아 발생한 《인공기표적》 사건, 괴뢰군병영과 초소들, 군사시설물들에 써붙이거나 내다건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구호 또는 현수막》 사건, 사격장들과 훈련장에서 벌어진 《최고존엄표적사격》행위가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우리 민족의 대국상안에 저지른 만고대역죄는 우리 최고존엄을 가장 엄중히 모독한 악행중의 악행이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러한 특대형도발행위를 리명박역도가 직접 고안해내고 괴뢰국방부 장관 김판진과 괴뢰합동참모본부 의장 정승조를 비롯한 군부호전광들이 그것을 《국정파제》로 내세우고 앞장서 벌리고있다는데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강행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구름이 밀려들고있는 때에 역적패당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반민족적, 반공화국대결망동을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 더이상 그대로 둘수 없는 극단의 도발로 비상사건화하지 않을수 없다.

역적패당의 특대형도발사건에 대한 소식에 접한 백두산혁명강군의 투핵공군장병들은 《명박이를 쳐죽이라.》, 《군부호전광들을 때려잡자.》는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명령만 내려주시기를 고대하고있다.

남조선사회에서도 벌어진 사태를 두고 《모두의 가슴을 섬쩍하게 만드는 분별없는 행위》, 《원색적인 동족대결음모》, 《전쟁을 회기시키는 정신병자들의 처사》로 규탄하고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천만군민의 치수는 분노와 복수심, 남조선 각계의 민심을 반영하여 이미 내외에 천명한대로 역적패당을 이 땅에서 매장해버리기 위한 우리 식 성전을 무차별적으로 벌리게 될것이라는것을 다시금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한다.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바로 리명박역적패당이며 오직 총대로 쓸어버려야 할 반역의 무리가 다름아닌 괴뢰군부호전광들이다.

물리적타격을 기본으로 한 우리 식 성전은 역적패당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모든 행위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 리명박역도와 군부호전광들을 비롯한 주모자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지은 대역죄를 민족앞에 사죄할 때까지 중단없이 벌리게 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민족공동의 존엄과 명예로 간주하고있으며 그가 누구든 털끝만큼이라도 그것을 모독중상하거나 훼손하려고 달려든다면 가차없이 짓밟개버릴것이다.

지난 북남관계사가 아무리 복잡다단했어도 리명박역적패당에 의하여 지금처럼 극도의 대결상태가 조성되고 전쟁위험이 도래한적은 일찌기 없었다.

날을 따라 확대강화되고있는 역적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은 죽어 너부러질 때가 다가올수록 더 악착스럽게 덤벼드는 미친개의 본성 그대로이다.

천만군민의 심장속에서 용암처럼 이글거리는 보복일념으로 만장약된 우리의 총대는 역적패당이 다시는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헐뜯지 못하도록 마지막 한놈까지 강그리 소탕해버리게 될것이다.

세상은 자기 수령, 자기 제도를 결사옹위하기 위해 떨쳐나선 우리 천만군민의 무자비한 성전앞에 특대형도발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자들은 이 땅, 이 하늘아래 살아숨쉴 곳이 없다.

아 전 장 군 의 한 생

야전, 사람들은 이 말을 단순한 군사용어로만 부르지 않는다. 위대한 인간의 한생, 위대한 령장의 불굴한 신념과 의지가 바로 이 말속에 뜻깊게 빚어넣고 있다.

한평생의 해와 달들을 오직 하나의 생활방식-야전생활로 즐기 차게 이어오신 김정일장군님. 눈물속에 외워본다. 야전복, 야전차, 야전렬차, 야전군화, 야전사령관... 그의 생활의 모든것, 그의 한생의 모든것앞에 야전이라는 말이 놓여있다.

그이의 생애에 대하여, 그이가 지녔던 필생의 뜻과 기개, 리상이 어떤것이었던가를 다 말해주는 야전.

한없는 그리움속에 삼가 더듬어보는 장군님의 한생은 말그대로 야전한생이다.

불같이 치우는 강렬한 열의의 세계도, 가장 헌신적인 조국과 인민에 대한 복무의 정신도, 천하를 위락파락하는 강인담대한 배짱과 담력, 처절한 고난과 시련을 꽃같이 박차고 뚫고나가신 그 용맹과 슬기도 어찌 이 야전이라는 말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있랴.

눈보라 몰아치는 백두밀령에서 탄생하신 그날부터 시작된 그의 야전생활.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녀사께서 한뎀틈 바느질을 하시어 어리신 장군님께 정히 입혀드리신것은 수령님과 자신의 군복을 줄여 만든 장군복이었다.

장군님께서 그 군복을 입고 백두전장에서 항일의 총포성과 투사들이 부르는 불찌산군가를 자랑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시었다.

하기에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사실 나의 병사생활은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된것이다. 다음없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에 담은것은 어머니의 군복이었고 내가 처음으로 손에 짚고든 어머니의 권총이였습니다. 그때 나는 유격대원들과 같이 굶고 같이 얼고 달콤한 짭작과 따스한 우동볼의 귀중함을 간절하게 느끼며 자라났습니다.》

백두밀령의 귀틀집은 우리 장군님의 고향집이었다. 그러나 그 고향집은 장군님의 야전생활, 병사생활이 시작된 야전병설이기도 하였으니 백두에 찍으신 인생의 첫 자욱도, 한생의 자욱자욱도 그이 야전길에 새겨오신 것이다.

가렬했던 조국해방전쟁의 3년 세월, 장군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이 나라 인민들과 숨결을 같이하시었고 참기 어려운 고통도 함께 겪으시었다. 원수적멸에 나선 전진병사들의 중심우에 그의 분노가 서리발쳤고 전진승리를 위해 한몸바쳐 투신한 인민들과 똑같이 그이는 자신의 온몸을 뜨겁게 달구시었다.

최고사령부 작전대결에서 수령님과 함께 지새우신 밤은 또

얼마였던가. 그 나날 장군님께서 수령님으로부터 한자루의 권총을 받아안으시었다. 책가방을 쥐어야 할 나이에 총대를 잡으시고 그 총대와 함께 끝까지 운명을 같이할 심장의 언약을 나누신 장군님.

그이의 가장 친근한 혁명동지, 한생의 변함없는 길동무가 바로 총이었다.

총은 말이 없다. 하지만 그 총이 울리는 총성에는 총대가 목직이 품고있는 집적의 도로, 불같은 감격의 진실이 있다.

그 총성이 전하여주는 못 잇을 사연은 어은동의 신발에도 력력하다.

대학시절 어은동군사야영소에 나오신 첫날 장군님께서는 나 는 여기로 떠나오면서 수령님께 군사야영지에 나가 병사생활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수령님께서는 나의 결심에 절대찬성이 라고 하시면서 군사를 알자면 병사생활부터 알아야 한다고 하시었다고, 이제부터 나 는 소대와 분대에 소속된 대원이라고 말씀 하시면서 군사야영의 나날 평범한 대원이 되시어 훈련에 참가 하시었다.

소속된 분대의 분대장에게 규정으로 거주경례를 하시었고 식사도 대종식당에서 다른 대원들과 똑같이 잠복밤을 드시었고 식당근무성원이 되시어 가마에 쌀도 얹히고 남새도 따듬으신 장군님이었다.

얼마나 조준훈련에 열중하시었으면 팔굽이 다 벗겨져 피가 지고 시퍼렇게 멍까지 든 날도 있었으랴.

령장이 갖추어야 할 모든 품격과 자질을 갖춘고전이나 대학강당에서가 아니라 실지 전초에서 총대를 잡고 병사생활을 하시면서 갖추신 장군님이었다.

순경은 영웅을 감추고 역경은 영웅을 드러낸다는 말이 있다.

력사에 튼튼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기, 온 겨레와 세계가 지켜본 장군님의 모습은 야전복을 입으신 령장의 모습이였다.

그 나날 야전복을 입으시고 선군장정길에 용양 나시신 장군님의 야전생활은 이 나라의 산과 들, 강과 바다 그 어디에서나 끝없이 흐르고있었다.

철령과 오성산, 1211고지와 초도, 판문점... 장군님의 분분초초가 전선길에서 흘렀고 장군님의 걸음걸음이



재령광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2010. 1]

방선과 방선, 초소와 초소로 면면히 이어졌다. 조국방 방방곡곡이 아찔한 칼벼랑길과 깊은 산골, 땅 한 자는 바다가 최고사령관이신 그이의 주소였고 야전숙영지였다.

한두해도 아니고 수십년세월 바람채찬 외지에서 야전생활을 하시느라 그이의 로고와 고생이 오죽했으랴.

말과 글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 장군님의 헌신은 그야말로 자신 을 짊그리 다 바치시는 희생적인 헌신이었다.

그 길에서 《짭작》과 《뺨기 밤》이라는 말도 생겨났으니 세상 에 어느 령도자가 족잡에 든적 있었고 뺨기밤으로 끼니를 예운 례가 있었던가.

나도 인간인것만큼 힘이 들고 잠이 그리를 때가 많다고, 하지만 나는 편안히 휴식할수도 없고 마음속고 잠을 잘수도 없는 몸이 라고 하시면서 장군님 이어가고 또 이어가신 선군천만리.

실날과 명절날, 지어 온 나라의 축복을 받으셔야 할 자신의 생신날에도조차 장군님께서 재력이 아니라 찬바람부는 한지에서 현지지도하러 강행군길을 걸으시었다. 그의도 장군이시기 전에 인간이시었다.

그이이시라고 어이 힘겨움을 모르시고 피곤을 모르셨으랴. 보

통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그런 힘겨움과 피로를 남몰래 이겨내 시느라 속대웠을 장군님을 생각 하니 찢기는 가슴이 눈물에 젖고있었다.

사랑하는 조국과 겨레의 운명 을 지키고 빛내주시려고 그 모 든 고난과 육체적고통을 달게 여기시며 험치않은 강행군길을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헤쳐가신 경애하는 장군님. 불면불휴-그 것이 날과 달이 흘러도 변치않은 우리 장군님의 야전일과였다.

일군들이 그이의 건강이 넘어 되어 걱정의 말씀드릴 때에도 나는 《건강하시라》라는 인사 를 받을 때보다 《야전사령관》, 《야전장군》, 《실천장군》이라 는 인사를 받을 때가 제일 기쁘 다고 말씀하신 장군님이시디.

이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 한 복무의 길에서도 언제나 야 전복을 벗지 않으시었다.

전초가의 흙냄새가 배인 야전 복을 입으시고 공장구내길을 걸 으시었고 눈비에 젖은 야전복차 림으로 농장포진길을 걸으시었 으며 삼복철의 땀으로 화락 젖은 야전복 그대로 제대군인부부의 집 을 찾으시기도 하시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을 남부 럽지 않게 잘살수 있게 하겠는 가. 이것이 장군님의 마음속에 항상 차넘친 소망의 전부였고 녀

원의 세계였다.

노래 《하늘처럼 믿고삼니다》 를 들으시며 나는 저 노래를 들 을 때마다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 을 잘살게 하기 위해 헌신분투하 겠다고 하시던 장군님의 말씀을 오늘날도 조국인민들은 가슴에 소 중히 간직하고있다.

따르고 받들려는 진정을 담아 인민이 장군님께 드린 노래였던 만 오히려 그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와 의지를 그 노래에 담으신 장군님이시었다.

인민은 하늘처럼 그이를 받들었 기만 장군님은 그 인민을 하늘처 럼 받들고 한생을 바쳐오시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길은 갈라진 겨레의 고통을 가시여주기 위한 성스러운 통일의 길에로 면면히 이어졌다.

은 겨레가 오늘날도 잊지 못하는 16년전의 판문점시찰의 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각각 갈라져가던 그때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전방중의 최전방인 판문 점 시찰하신 빨치산아들의 모습을 야전복을 입으신 령장의 모습이 이었다. 새벽안개 흐르고 찬바람 이 야전복자락을 날리는 판문점 에서 장군님께서 분별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만

드실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시었고 밀려오는 전쟁불기름을 야 전복을 입으신 자신의 한몸으로 다 막아내시 었다. 어찌 그뿐이랴. 그날의 야전복을 마음속으로 풀어보면 그 이 품에 안겨 남조선 기업가가 흘린 눈물자 욱도 스며들었고 안아 주신 그 많은 땀과 눈물이란 말이며 포들이 처친 감격과 격정도 뜨겁게 어어 어었으니 그이의 야전복 이야말로 겨레를 품고 있는 조국통일투쟁에 로 불리일으켜 세워준 기치였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우리 민족을 지켜준 방패였고 성 새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외국방문도 결코 달 리는 말할수 없는 야 전직, 빨치산식방문이 었다.

2002년 8월 로씨야의 원동지역을 방문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번 방문도 빨치산식 으로, 야전식으로 하 자고, 화려하고 아늑 한 초대소를 숙소로 정할것이 아니라 렬차 를 숙소로 정하고 밤 에는 목직의를 향해 달리고 닳아는 방문하 야 할 단원들을 렬차 에 위임없이 다니며 돌아보자고, 그렇게 해야 성에 차고 보람을 느낄수 있다고 하시며 방문전 기를 야전렬차에서 지내시었다.

원동지역방문의 마지막날밤 만이라도 숙소에서 쉬실것을 로씨야사람들은 간청드렸지만 그이께서는 굳이 렬차속소에서 한밤을 보내시었다.

역구내에 올리는 소란한 렬차 소음에 장군님께서 쉬셨으면 얼마나 쉬셨으랴.

하지만 그이께서는 야전승용차 와 렬차에서 족잡을 잡고 깊은 잠도 자는것이 생활화되었다고, 야전승용차의 발동소리와 렬차 의 덜커덩거리는 소리는 나의 자 장가이고 잠둥무라고 혼연히 웃 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인 2011년도에 장군님께서 야전렬 차에서 내리실새 없이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위임없이 찾으시 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 상을 위한 돌과구들을 열어주시었다. 류달리 추위가 맹만 12월에도 중병을 앓으시는 불행한 시점으 로 여러 단위들을 찾은 또 찾으시 며 인민생활을 높여야 한다고 그 리도 간곡하게 하신 그 당부 야전 복을 입으신 장군님의 모습과 함 께 둘러여온다.

한평생 야전복을 입으시고 야 전생활을 하시느라 언제나 야

전군화의 신들매를 푸신적 없으 셸던 김정일장군님.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피눈물 의 대극상을 당한 조국인민들 에게 야전복차림으로 환히 웃으시 는 장군님의 태양상을 안겨주신 것 아니던가.

야전, 사람들은 이 말을 쉽게 부르지 못한다.

야전, 이 말은 우리 장군님께서 한생토록 맞고맞으신 눈과 비라 는 말이며 바치신 천만로, 천 만만이라는 말이다.

또한 이 말은 장군님 흘리신 그 많은 땀과 눈물이란 말이며 한평생 품고사신 숭고한 뜻 애국 애민이라는 말이다.

야전이라는 말과 함께 이 땅에 수놓아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 국의 한생을 겨레는 두고두고 잊 지 않고 추억할것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백두산위인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서계신다. 세대의 첫아침 온 겨레와 세 계는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명 크사단을 시찰하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 의 모습을 비쳤다.

이것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을 끝 까지 이어 조국을 빛내이시고 민족만대의 번영을 이룩하시러 는 그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 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위대한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전선길 을 위임없이 달리시며 인민군부 대들을 렬차에 찾아주시었다. 날 이 저물고 어둠이 깃들 때까지 군부대시찰을 진행하시며 병사 들의 침실, 식당 등 생활의 모 든것을 구체적으로 보살펴주시 고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전설적령장.

사람들이 누구나 격정속에 비 읊는 그 숭엄한 모습은 야전복 차림으로 현지지도의 강행군을 펼칠주야로 진행하시던 장군님 의 모습을 그대로 방불케 한다. 그이는 오늘의 김정일장군님이시 디다. 령장의 위업은 오직 평장 만이 이룰수 있고 위인의 뜻은 오직 위인만이 만대에 떨쳐갈수 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 선군애국의 큰 발걸 음으로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이끌어가고계신다.

그 우렁찬 발걸음소리와 더불어 거는 머지않아 이 땅을 진감 할 강성국가의 총포소리, 통일만 세의 환호소리를 듣게 될것이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탁월한 령도력,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 로 승리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 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를 모신 우리 민족의 래일은 더욱 휘황찬란하다.

그 찬란한 미래를 축하하시며 오늘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야전복을 입고서도 환히 웃으계 십니다. 우리 조국, 7천만겨레의 앞날을 축하해주시디.

김대룡

71년전의 불날을 추억하며

불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의 혼황을 가슴후둑게 느낄 수록 한창의 사진이 못 잊을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우리의 눈앞에 어리어나.

항일대전의 그 나날 초연이 슴배인 군복차림으로 봄물이 오르기 시작한 나무앞에 서서서 햇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는 백두산청년장군 김일성주석과 항일의 전설적녀장군으로 명성떨친 김정숙녀사님의 모습.

조국해방의 대사변이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오던 주체 30(1941)년 3월 타향의 밀림속에서 봄을 맞이하게 되신 백두산장군들의 심정은 얼마나 뜨거우시었던가.

그 봄날 주석께서는 인간해방, 민족해방의 봄을 기어 이 안아오실 마음속의 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으시며 투우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이께서 대원들과 함께 한창 사진을 찍고계시는 데 녀대원들이 달려와 김정숙녀사와 사진을 찍으셨 으며 하는 청을 드리었다.

너무도 뜻밖의 일에도 녀사께서는 내우하시며 그 들의 등뒤로 물리시었다. 그러나 녀대원들이 한사코 막무가내로 떠미는바람에 녀사께서는 수령님께서 서 계 되시었다.

이렇게 되어 세상에 전해 지게 된 것이 두분의 뜻깊은 사진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그 사진을 제일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었으며 늘 타향의 그 봄 날을 잊지 못하시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열기왕성한 청년들이었다. 꿈도 많고 웃음도 많을 때였다. 타향에서 봄을 맞이했지만 다들 심심에 넘쳐있었고 기 세도 좋았다.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깊은 말씀은 비록 봄은 타향에 있어도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락관하시며 청춘의 더운 피를 끓이시던 백두산 장군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감동깊이 전해주시었다.

무릇 사람들은 봄을 기쁨과 희망, 환희의 대명사로 일러왔다. 그러나 만물에 소 생을 주는 자연의 봄은 세월의 흐름따라 절로 찾아오지 만 인민의 행복이 꽃피어나 는 봄은 결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백두산위인들께서 높이 추켜 드신 민족의 총대에 의하여 항일대전의 승리가 이루어졌으 며 인민들의 봄, 해방의 봄은 기어이 오고야말았다. 진정 아버지이수령님과 김정숙녀사께서 사진을 찍으신 그 봄날은 타향의 봄이 었어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 에 밝은 사랑을 안겨준 희망 의 봄, 승리의 봄이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노래 《2월은 봄입니다》를 들으시

며 이 노래를 들을 때면 항일의 무장투쟁시기 아버지이수령님 과 어머니께서 타향에서 봄 을 맞으시며 찍으신 사진이 생각난다고, 2월의 봄을 알 자면 타향의 봄을 알아야 하며 타향의 봄이 있어 2월의 봄이 있다는 의미깊은 말씀 을 하시었다.

타향의 봄이 있어 2월의 봄이 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심장에 새기느라던 백두산의 아들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 의 총대를 더욱 높이 추켜드 시고 넘고 헤치신 력사의 천 만리길이 어찌오고 그 길에서 이룩하신 승리의 봄우소리 가 심금을 쿵쿵 울려준다.

일찌기 수령님께서 개척하 신 민족자주위업의 길에 나 서서서 끊임없는 헌신과 로 고로 이 땅에 행복의 봄을 또 활짝 꽃피우시시고 선군 의 기치 밑에 내 나라, 내 조 국의 준엄과 영예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

우리에게서 행복의 봄을 빼앗으려고 반공화국적대 력이 악랄하게 책동하던 준 엄한 시련의 시기에 천만군 민의 심장마다에 선군만이 살길이라는 억센 신념과 의 지를 안겨주신 천리방신을 주름잡으시며 종횡무진하신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자욱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때로는 몸소 조향문을 잡 기도 하시고 미끄러지는 야 전차를 어깨로 밀기도 하시

며 즐기게 이어가신 철령의 험한 길과 오성산의 굽이 굽이, 통방사나운 초도에도 의 황해길, 끊임없이 이어지 던 렬차강행군...

백두명장의 끊임없는 선 군천만리길은 자신의 몸으 로 닦쳐드는 고난과 시련을 다 막고 위대한 심장을 바쳐 이 땅에 따스한 봄을 안아 온 선군령장의 성스러운 장 정이었다.

선군조선의 봄은 타향의 봄을 민족만대의 영원한 봄 으로 이어가시려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쳐 걸으신 선군장 정 의 길우에서 꽃피던 위대 한 승리의 봄이다. 그 봄은 천만년 세월이 흐르고흘러도 백두산위인들에 의하여 굳건 히 이어지는 영원한 계승의 봄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과 똑 같은 신 위 대한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 어 71년전 타향의 봄은 조선의 봄으로, 통일강성국가의 봄으 로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 70돐을 뜻깊게 맞이한 2월의 봄날에 온 겨레는 장군님의 엄한 시련의 시기에 천만군 민의 심장마다에 선군만이 살길이라는 억센 신념과 의 지를 안겨주신 천리방신을 주름잡으시며 종횡무진하신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자욱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때로는 몸소 조향문을 잡 기도 하시고 미끄러지는 야 전차를 어깨로 밀기도 하시

지만 2월 뜻깊은 광명성절 을 맞으며 아버지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건 립한 우리의 심정은 이루 형 언할필 없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회세의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을 건 립하는것은 조형예술창조에 몸담고있는 우리 창작가들 의 제일 큰 소망이고 기대 였다.

평양의 만수대언덕이며 북변의 량강도 삼지연, 함 북의 온성일대를 비롯하 여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 에 수령님의 동상을 형상했 고 후세에 길이 전할 수 많 은 기념비들을 세웠지만 장군님의 동상만은 그 어디에도 모시지 못한 우 리들이었다.

사실 우리는 온 나라 군대 와 인민의 절절한 소망과 기 대, 요청을 헤아려 오래전부 터 장군님의 동상을 형상하 고 기념비를 건립하는 창작 활동을 어느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열이면 열 우리모 두의 창작세계에는 그이의 동상형상안이 팍 차있었다.

그러나 좀처럼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기미만 보 이면 장군님께서 절대 불허 하셨던것이다. 사상이나 만 류정도가 아니라 매우 노해 하시며 엄하고 단호하게 질 책하셨다.

경제문제, 인민생활문제 를 쫓고 강성국가를 건설 해야 하며 조국통일도 해야 하기때문에 아직은 할 일이

많은데 무엇때문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가 하 는것이였다. 털어놓고 말하 여 그 누가 권고해서가 아니 라 우리들 스스로가 남모르게 시작을 땀 땀상건립문제였지 만 너무도 겸허하신 그이의 거침없에서 중시 빛을 보지 못한채 지극한 해를 넘기군 하였다.

장군님의 룬거는 명백하 였다.

동상을 세우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위인의 력사 는 동상이나 기념비로 빛나

었다.

우리모두의 몸과 마음은 지혜와 열정, 온 나라 인민 의 기대와 관심속에 온통 불 덩어리처럼 뜨겁게 달아올랐 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생 전의 모습으로 우리곁에 다가오셨다.

위엄있는 군마를 타신 장군님과 장군님께서 찬 연히 밝아오는 조국의 광명 한 앞날을 그려보시며 백두 에서 개척된 애국위업을 끝 까지 완성하실 원대한 뜻을 구상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이 헤아리시 여 동상형상초 안으로부터 건 립에 이르시까 지 깊은 관심 을 돌리시고 훌륭히 완성하 도록 보살펴주시었다.

장군님의 동상을 형상하 고 건립하는 나날 우리모두 는 김정은동지는 장군님의 애국위업을 빛나게 만들어 가시는 총칙한 계승자이 며 출중한 자질과 비범한 령 도실력을 지니신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 민족 의 어머니이시라는것을 폐부로 절감했다.

우리들을 만나시고 장군님 의 동상을 훌륭히 건립한데 대해 기뻐하시며 높이 이차 해주시던 그이의 거룩하고 인자하신 모습에서 위대한 령도자, 자라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실재했고 강성부흥할 비로 훌륭히 형상하게 되 었다.

인민예술가 우응호 (민주대창작사 공훈조각 창작단 단장)

수기 위인의 동상이 모셔지기까지

는것이 아니라 사상과 업적 으로 빛나는것이였다.

그이의 말씀에 자신과 관 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불응하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적령도자의 인간적품모 가 그대로 비껴있다. 열화같은 애국애족애민헌신으로 온 녀를 짊그리 불태우시며 천 추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그이의 한생 의 총화가 있다고 본다.

바로 여기에 장군님을 잃 은 절절함에 온 나라 인민이 눈물을 뿌리며 몸부림친 애도와 열정의 그 나날에 수 천수만의 남녀노소가 그의 동상 하나, 기념비 하나 찾 아뵈우지 못한 가슴아픈 사 연이 있는것이다.

우리는 슬픔을 힘으로 바 꾸고 분연히 일어나 장군님 의 동상형상에 달라붙게 되

었다.

자주로 빛나는 조국땅과 온 누리를 끌어모시는 수령님의 존엄을 기상과 군마를 달 리 단숨에 장군봉에 오르시 여 찬란한 노을속에 밝아오 는 선군승리의 래일을 그 러보시는 장군님의 위인적 품모를 조형예술적으로 형 상한것이 지금의 기마동상 이다.

부언하건대 오래동안 우 리는 장군님의 불멸의 생애 와 업적 그리고 위인적품모 가 집대성된 그이의 동상을 마음속에 이미 모시고있었 기때문에 짧은 기간에 기 마동상을 만년대계의 기념 비로 훌륭히 형상하게 되 었다.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막행 사를 치른 때로부터 매일갈

분노의 도화선에 끝끝내 불을 단 역적패당

민족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씻을수 없는 대범죄

남조선에서 리명박역적패당의 대결책동이 도수를 넘어 국도에 이르렀다.

최근 리명박역적패당은 군부호전광풍을 내몰아 동족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벌여놓다 못해 감히 우리 민족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용납 못할 특대형도발행위를 또 다시 감행하였다.

보도된바와 같이 최근 인천시에 주둔하고있는 남조선군부대의 내무반에서는 벽체를 비롯한 여러곳에 감히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제멋대로 걸여놓고 모독하는 천하무도한 망당짓을 벌여놓았다.

지난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표적》도발을 감행한데 이어 대국상을 당한 동족의 가슴에 칼질을 하여 우리 민족은 물론 전 세계의 커다란 저주와 규탄을 받은 역적패당이 이번에 또다시 감행한 천하무도한 대결광풍은 민족의 반민족적인 히스테리적광풍이며 정세를 최악의 국단으로 몰아가는 무지

한 광풍집단의 새로운 특대형도발행위이다.

력대로 남조선에서 동족을 반대하는 정치군사적도발행위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리명박역적패당처럼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린자들은 일찌기 없었다. 리명박역적이 집권한 후 감행된 《인공기표적》 사건, 남조선군병영과 초소들, 군사시설물들에 써붙이거나 내다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구호 또는 현수막》 사건, 사격장들과 훈련장들에서 벌어진 《최고존엄표적사격》행위가 바로 그 대표적실례들이다.

이러한 극단한 도발행위의 앞장서는 극악한 대결광풍자 리명박과 그 수하들인 김관진, 정승조를 비롯한 군부광풍들이 서있다.

식민지 노복이 되어 외세의 발바닥이나 깔으면서 구차한 명졸이나 부지해나가는 리명박이나 김관진과 같은 역적무리들이 우리 인민을 자주적인 인민으로 세계에 당당히 내세워준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한 범죄는 천추만대를 두고 용납될수 없는 죄악중의 죄악이다.

지금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최대로 긴장하다. 다치면 터질듯 한 정세속에서 사소한 도발행위로 전쟁의 불씨가 되어 전면전쟁으로 치달을수 있다.

바로 이러한 때 리명박역적패당이 군사불한당들을 내몰아 우리 민족이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최고존엄을 건드리며 대결광풍을 부린것은 공화국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사회에서는 이번의 사태를 두고 《최악의 상황》을 몰아온 분별없는 행위, 《전쟁을 회귀시키는 정신병자들의 처사》로 단죄규탄하며 무분별한 대결소동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숨을 몰아쉬면서도 동족을 물어뜯기 위해 최후발악을 하는 리명박역적패당에게는 이제 그 어떤 선의와 아량도 필요없으며 더이상

지켜볼것도 없다.

미친개는 동물이로 무자비하게 때려잡아야 하는것처럼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히스테리적인 대결광풍자들은 자비를 모르는 백두산 총대로 다스려야 한다.

민족의 최고존엄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이를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는자는 그가 누구이건 그 어디에 있던 끝까지 징벌하고야마는 것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의지이며 기절이다.

하늘에 새겨진 역적패당의 대죄악에 대한 소식을 접한 공화국의 군민은 멸적의 총대를 틀어쥐고 대결광풍자들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리기 위한 최후결전의 시각을 기다리고있다.

지금까지 참고참아온 공화국의 의지를 한강 《나약성》으로 오만하며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날뛰는 리명박역적패당은 공화국의 무자비한 성전앞에 전멸할것이다.

주범은 누구인가

주범은 리명박과 그의 총실한 노복인 김관진을 비롯한 군부호전분자들이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남조선호전세력이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다치면 터질듯한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동족의 가슴아픈 에도기간에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아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지경으로 몰아간것만도 용납할수 없는 데 불은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리명박은 리명박과 그의 총실한 노복인 김관진을 비롯한 군부호전분자들이 지금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덤벼치고있다.

대결미치광이들의 직접적 지시만이 남조선군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들에 복을 들과 선전물들이 설치되고 훈련장의 사격목표와 《절명지》들도 복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만들어졌다는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또한 남조선군의 그 무슨 《정신교육》에서 복은 《가장 핵심적인 적》으로 규정

되었는가 하면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장에 나타나 《주적 개념을 확립하라》고 목에 피대를 돌구었다. 그가 얼마나 대결과 전쟁에 환장하였는가 하는것은 2011년 6월 청와대에서 《연평도포격대 북을 타격하지 못했것이 천추의 한이다. 울화통이 터져 정말 힘들었다. 아직도 분을 삭이지 못하겠다. 참을수 없다》고 너드리를 늘어놓는데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불과 50km거리에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위험도 무릅쓸 단단한 각오를 가지라》, 《동족의 인권과 생명은 어떤 대가도 지불할수 없는 것이다》, 《대결미치광이들의 직접적 지시만이 남조선군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들에 복을 들과 선전물들이 설치되고 훈련장의 사격목표와 《절명지》들도 복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만들어졌다는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또한 남조선군의 그 무슨 《정신교육》에서 복은 《가장 핵심적인 적》으로 규정

민족의 대국상기간을 노리고 북침전쟁연습들을 의도적으로 감행하고있는 리명박보수 《정권》에 대한 온 겨레의 분노와 저주는 지금 하늘끝에 닿고있다.

이러한 때에 남조선보수당국이 또다시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로골적으로 모독하는 대역죄를 저지 않았는지 저지른것은 천추만대를 두고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이것은 오직 리명박역적패당만이 벌일수 있는 반민족적인 히스테리적광풍이며 북남관계를 더는 수습할수 없는 막대한 지경으로 몰아가는 무지한 광풍집단의 새로운 특대형도발행위이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의 극치

최고존엄에 대한 리명박인민의 증상모독행위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엄중한 단계에서 진행되어왔다.

이미 폭도된바와 같이 남조선군부호전광풍은 특대형군부대들에서 《인공기표적》사건이관것을 조작한데 이어 군사분계선과 그 주변일대에 있는 남조선군병영과 초소들, 군사시설물들에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구호》와 《현수막》들을 써붙이거나 내다지는 반공화국도발행위들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남조선군부대들의 사격장들과 훈련장들에서 벌

어머 김관진과 같은 군부광풍들이 그것을 그 무슨 《국정교과》로 삼고 앉아서 실행하고있다는데 있다.

지난 시기 북남관계가 아무리 복잡다단해도 리명박보수 《정권》에 의해 오늘과 같이 국도의 대결상태가 조장되고 전쟁위험이 도래한적은 없었었다.

공화국의 거둬드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도수가 최절정에 달하고있는 남조선호전광풍들의 극악무도한 반민족적, 반공화국도발책동은 죽음을 앞둔 미친개의 본성을 그대로 체현한 리명박인민의

주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 남조선사회에서도 벌어진 사태를 두고 《모두의 가슴을 섬적하게 만드는 분별없는 행위》, 《원색적 인종차별행위》, 《전쟁을 회귀시키는 정신병자들의 처사》로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극악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만을 일삼고있는 리명박보수집권세력이 살아숨쉬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 겨레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민족분열의 한을 총폭발하여 리명박역적과 그 하수인들을 이 땅, 이 하늘 아래에서 영원 매장해버리고야말것이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김관진을 비롯한 군부우두머리들은 감히 공화국의 지도부까지 걸고들며 《주적》이니 뭐니 하는 험담을 늘어놓았는데 가 하면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며 《교전수칙》을 고치고 《항공기를 동원하여 폭격》하겠다고 전쟁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최근에도 김관진은 전면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북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느니 뭐니 하는 험담을 하다 못해 감히 공화국의 존엄과 체체를 모독하는 망발도 꺼리낌없이 했다.

지난해 12월 청천벽력같은 민족의 대국상일에 천추만대를 짓는 리명박역적패당이 그에 대한 털끝만한 한 반성과 사죄도 없이 또다시 특대형도발행위를 감행한것은 더는 용서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우습게도 하늘에 대고 사대질하는 리명박역도와 군부불한당들의 무분별한 대결망동은 반드시 피의 대가를 치르고야말것이다.

시 백두산이 령을 내렸다

리 송 일

령을 내렸다
백두의 자손들이
백두산이 령을 내렸다
정의 총창을 비껴들라
역적패당을 청산할 때가
왔다
결산의 포문을 열라

조선민족은커녕
인간법에도 없는 쓰레기
들
감히 리명박파들이
반만년민족의 존엄 되찾고
빛내어주신
백두산이
어찌 그냥 두랴

백두산이 령을 내렸다
하늘이여 번개를 터쳐
역적패당 대갈등에 불소나기
퍼부으랴

땅이여 용암을 뿜어
천와대를 송두리채 제더미로
만들라

송장만도 못한 이런 놈들
때문에
민족의 운명이 유린당한다
인류도 모르는 이런 패물이
들때문에
백두의 자손들이 치욕당
한다

백두산이 노호한다
한시인들 용서하라
조국과 민족도 모르는 매국
노들
리명박역적패당 더 이상
살려두면
삼천리의 하늘과 땅에 불구름
인다

더는 용서 못한다

이 땅, 이 하늘아래서
역적패당 더는 살아숨쉬
곳 없다
백두산이 령을 내렸다
백두산총대가 격발기를
당겼다

무자비하게 쓸어버리자
백두대양 해발아래
강군의 힘 백배로 다지고
다진
백두의 자손들이
멸적의 방아쇠 당기라

세상에 존엄높은 백두대양
터질만큼이라도 증상모독
한자들
한놈도 살려두지 말라!
백두산이 령을 내렸다
리명박역적패당 깨끗이
청산하고
조선민족의 속인을 풀자!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민족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증상모독한 이번의 참을수 없는 망동은 동족과 전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하등 다를바 없다.

력사에는 사소한 군사적충돌이 전쟁으로 번져진적도 있고 단 한방의 총성으로 세계를 전쟁의 화염에 휩싸이게 한 비극적인 일화도 기록하고있다.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치되어있는 세계적으로도 군사적긴장이 가장 높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쌓일대로 쌓인 조선반도에서 상대방에 대한 자국적인 행동이 자칫 군사적충돌을 불러올수 있고 전쟁으로 타락질수 있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이번에 남조선의 군부호전광풍들이 저지른 망동은 도발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엄중한 특대형도발이고 대국상중에 있는 동족의 아픈 가슴을 칼로 허비다 못해 갈가리 찢어놓는것과 같은 참을수 없는 망동이다. 공화국의 평토에 총포탄을 퍼부은것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복의 사상과 제도, 존엄과 주권, 생명을 송두리채 부정하고 마구 짓밟는것과 같은 천벌을 받을 악행이다.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민족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증상모독한 이번의 참을수 없는 망동은 동족과 전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하등 다를바 없다.

력사에는 사소한 군사적충돌이 전쟁으로 번져진적도 있고 단 한방의 총성으로 세계를 전쟁의 화염에 휩싸이게 한 비극적인 일화도 기록하고있다.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치되어있는 세계적으로도 군사적긴장이 가장 높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쌓일대로 쌓인 조선반도에서 상대방에 대한 자국적인 행동이 자칫 군사적충돌을 불러올수 있고 전쟁으로 타락질수 있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이번에 남조선의 군부호전광풍들이 저지른 망동은 도발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엄중한 특대형도발이고 대국상중에 있는 동족의 아픈 가슴을 칼로 허비다 못해 갈가리 찢어놓는것과 같은 참을수 없는 망동이다. 공화국의 평토에 총포탄을 퍼부은것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복의 사상과 제도, 존엄과 주권, 생명을 송두리채 부정하고 마구 짓밟는것과 같은 천벌을 받을 악행이다.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바라지 않는 조선민족이지만 역적패당은 우리 겨레가 평화롭게 살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불화의 씨를 뿌리다 못해 불신의 화약더미에 불을 달아놓았다.

참고참아오던 복의 인쇄심은 지금 한계점을 넘어섰다. 복수의 일념이 복의 방방곡곡에 차넘치고있다. 만고역적 리명박을 그 냥 놔두지 않겠다 조선의 총대가 부르르 떨고있다.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연평도가 어떻게 불바다가 되었는지 꼼꼼히 되새겨보아야 한다. 도발에는 징벌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성전으로 단호히 대답하는것은 인민군대의 기질이고 조선의 초강경립장이다.

역적패당은 저들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의 대가가 얼마나 쓰고 참혹한것인가를 이제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시 멸적의 불길 라오르나

리 칠 준

터지는 분노에 가슴이
운다
라오르는 증오로 심장이
란다
총대를 틀어쥔 병사들
이 나라 전체 인민들
불타는 보복일념에 일떠선
이 땅

아무리 평화를 사랑한대도
아무리 전쟁을 바라지
않는대도
어찌 그냥 둘수 있으랴
어찌 숨쉬도록 내버려두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인
최고존엄을 건드린자들을
죽음의 불속에 처넣지 않고
서는
피라는 증오로 달아오른
가슴들 식지 않으리
저 무지한 리명박광풍
집단을

보복의 철퇴로 처참지 않고
서는
피발선 눈들 밤을 모르리
란다
민족의 어머니를 잃은 땅
태질하는 우리의 가슴에
악랄하게 칼질을 할 때
백과 살에 피속에
복수를 채워온 우리들이다

참을수 없다 이제 더는
역적패당을 그대로 두고
서리발총검은 해서 무엇
하랴
가슴속에 품고품은 증오의
폭탄
활화산처럼 터치지 않고
천만날을 살아 무엇하랴

분노한 백두산혁명강군이
천하무도의 특대형도발
자들
한놈도 남김없이 짓밟게
버릴테

무한케도의 동음을 울린다
지구상 어디서도 피할수
없는
섬멸의 포탄을 쟁쟁 장약
한다

보라, 우리 군대와 인민을
보라
이제껏 겪어온 아픔에
이제껏 참아온 분노에
천백배를 더한 복수의
불을 안고
이 땅은 그대로 멸적의 불
로 라오르나니

부나미처럼 날뛰는 리명박
역적패당
무자비한 성전의 불길에
씨도 없이 재가루도 없이
라버릴 때
세게는 보게 되리라
삼군조선의 최고존엄은
천만심장이 총폭탄되어
지킨다는것을!

남조선역적패당이 감행한 특대형도발사건에 대한 소식에 접한 우리 청년들은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안고 산악같이 일떠섰다.

이미 인간이기를 그만둔 자들이 무당스럽게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고 신성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엄을 건드렸다니 이보다 더한 대역죄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백두산절세위인들은 온 겨레와 인류의 절대적인 존경과 다함없는 흠모를 받고있는 위대한 태양이실뿐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삶과 운명의 전부이시고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그런데 도대체 리명박, 김관진, 정승조와 같은 인간쓰레기들이 감히 태양의 존엄을 훼손시키려 했었으니 이 하나만 가지고도 역적패당은 이 하늘아래, 이 땅위에 살아숨쉬 자격을 잃게 되었다.

우리는 괴뢰패당이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을 매달리면서 악랄하게 우리를 헐뜯을 때마다 알아들을만큼 타이리도 주었고 여러차례 경고도 하였다. 하지만 리성을 잃은 광풍

남조선의 리명박패당이 또 다시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였다는 경악할 사실에 접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지금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역적패당이 민족의 대국상에 조문을 고사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조문길을 가로막은것으로도 모자라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며 아직 상복도 벗지 못한 동족의 가슴에 또다시 칼질을 한것은 지옥의 기름가마에 처넣어도 씨런치 않을 대죄악이다.

명색이 그리스도교장로라는 리명박과 그 패당은 《비핵, 개방, 3 000》과 같은 대결정책을 북남관계의 《성서》처럼 내뿜으며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하고 동족적대감을 고취해왔다.

그 역적무리들에 의하여 6. 15시대에 남조선인민들의 마음속에 존경과 추앙의 모습으로 새겨진 백두산위인들의 영상이 모두되고 거리와 마을들에 휘날리던 공화국기 말이 오늘은 대결 《표적》이 되었다.

민족의 평화통일을 일일천추로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념원을 우무하고 배신한 리명박과 그 패당은 유다보다도 못한 너털한자들이며 사탄의 무리보다도 더한 악한들이다.

지옥은 죽은자만 가는 곳이 아니다. 현세에 악한것을 한 리명박이야말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공화국은 이미 민족의 이름으로 역적무리들의 아성을 넘을 힘을 모으고 배신한 리명박과 그 패당은 유다보다도 못한 너털한자들이며 사탄의 무리보다도 더한 악한들이다.

지옥은 죽은자만 가는 곳이 아니다. 현세에 악한것을 한 리명박이야말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공화국은 이미 민족의 이름으로 역적무리들의 아성을 넘을 힘을 모으고 배신한 리명박과 그 패당은 유다보다도 못한 너털한자들이며 사탄의 무리보다도 더한 악한들이다.

지옥은 죽은자만 가는 곳이 아니다. 현세에 악한것을 한 리명박이야말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바라지 않는 조선민족이지만 역적패당은 우리 겨레가 평화롭게 살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불화의 씨를 뿌리다 못해 불신의 화약더미에 불을 달아놓았다.

참고참아오던 복의 인쇄심은 지금 한계점을 넘어섰다. 복수의 일념이 복의 방방곡곡에 차넘치고있다. 만고역적 리명박을 그 냥 놔두지 않겠다 조선의 총대가 부르르 떨고있다.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연평도가 어떻게 불바다가 되었는지 꼼꼼히 되새겨보아야 한다. 도발에는 징벌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성전으로 단호히 대답하는것은 인민군대의 기질이고 조선의 초강경립장이다.

역적패당은 저들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의 대가가 얼마나 쓰고 참혹한것인가를 이제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남조선의 리명박패당이 또 다시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였다는 경악할 사실에 접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지금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역적패당이 민족의 대국상에 조문을 고사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조문길을 가로막은것으로도 모자라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며 아직 상복도 벗지 못한 동족의 가슴에 또다시 칼질을 한것은 지옥의 기름가마에 처넣어도 씨런치 않을 대죄악이다.

명색이 그리스도교장로라는 리명박과 그 패당은 《비핵, 개방, 3 000》과 같은 대결정책을 북남관계의 《성서》처럼 내뿜으며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하고 동족적대감을 고취해왔다.

그 역적무리들에 의하여 6. 15시대에 남조선인민들의 마음속에 존경과 추앙의 모습으로 새겨진 백두산위인들의 영상이 모두되고 거리와 마을들에 휘날리던 공화국기 말이 오늘은 대결 《표적》이 되었다.

민족의 평화통일을 일일천추로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념원을 우무하고 배신한 리명박과 그 패당은 유다보다도 못한 너털한자들이며 사탄의 무리보다도 더한 악한들이다.

지옥은 죽은자만 가는 곳이 아니다. 현세에 악한것을 한 리명박이야말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공화국은 이미 민족의 이름으로 역적무리들의 아성을 넘을 힘을 모으고 배신한 리명박과 그 패당은 유다보다도 못한 너털한자들이며 사탄의 무리보다도 더한 악한들이다.

지옥은 죽은자만 가는 곳이 아니다. 현세에 악한것을 한 리명박이야말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민족의 최고존엄을 위하여

인간이 못할것 가운데 가장 너절한것의 하나가 남을 곁고드는데 있다 하였다. 입을 놀려도 상대를 바로 보고 놀려야 한다. 세상에 돌도 없는 역적들. 짐승만도 못한 역적무리들이 감히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중상모독행위를 감행하였다니 격분을 금할수 없다. 이인위척을 정치리념으로 삼고서 한평생 조국과 겨레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위인들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의 상징, 승리의 기치이다. 위대한분들을 믿고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어제도 오늘날도 변함없다. 대국상을 치른 지난해 12월의 나날 전 세계 인류가 조선인민이 자기 영도자를 얼마나 순결하게 받

고고 따르며 존경하는가를 똑똑히 보고 절감했다. 유독 초보적인 인물도덕도 없고 대결의식만이 골수에 밴 정치무능아, 저렬한 인간쓰레기 남조선의 역적패당이 피눈물을 흘리는 동족의 가슴에 칼질을 했고 슬픔을 함께 하며 조의를 표시하려는 남녘인민의 부행까지 가로막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최근 남조선의 역적패당이 무엄하게도 우리 인민의 최고존엄을 또다시 중상모독한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다. 우리 공화국의 《체제변화》와 《붕괴》를 꿈꾸어 온 역적패당이 이제는 민족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는 망동짓을 했으니 어찌 용서할수 있겠는가.

최근 남조선보수당국이 그 무슨 《북풍》이란것을 조작하여 불리한 《총선》국면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역전시키려 하고있다. 그들은 지난해부터 끌어오던 《왕재산간첩단사건》에 대한 재판놀음을 부랴부랴 벌여놓고 공화국과 억지로 편견시키면서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들먹이 행하였다. 이와 함께 남조선의 《민족21》 잡지 발행인과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공화국에 포섭되어 《간첩》활동을 하였다는 《신북풍사건》을 조작할 흉계밑에 전혀 무거운 잡소리들을 내들리며 사회적으로 살벌한 공안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 남조선군부호전장들도 《총선》전야에 미국과 야합한 《키리졸브》, 《독수리》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놓

음으로써 저들에 대한 민심의 비난과 규탄을 다룬데로 유도해보려고 꾀하고있다.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리명박독재 《정권》의 《북풍》 조작책동은 이번만 이 아니다. 2009년 7월의 《티도스공격사건》과 2010년 미중유

의 모략국인 합성침몰사건도 《북풍》을 만들기 위해 조작한것이다. 저들의 반인민적악정으로 인민들이 아우성치면 《남남갈등》을 부추긴다고 《북풍》을 만들고 민주주의위가 벌어지면 《안보불안》을 조성한다고 동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역적패당이 있다. 조선반도의 정세 긴장으로 의자가 빠져나가면 또 북의 탓이라며 《북풍》 조작에 열을 올리고있다. 지

금 리명박보수집권세력은 이번 《총선》에서 20~40대를 쟁취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안보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파산에 처한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이 《안보》에 유리하다는 터무니없는 꾀병들을 젊은층들에게 강제주입시키려 하고있다. 더우기 《장병은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사병

들이 민주개혁정당들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심지어 인기는 정치풍자방송인 《나꼼수》에 대한 시청마저 금지시키고있다. 최근에도 리명박보수당국은 공화국에 죄를 짓고 도주한 인간쓰레기들까지 내세워 《탈북자강제복송반대》

《(총선)과 《(대선)에 리용》하려는 범죄적시도라고 일제히 평하고 있다. 남조선의 진보단체들과 야당들도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북풍》을 리용하려 할수 있다.》고 하면서 보수당국의 《북풍》 조작책동을 강력히 규탄해나서고 있다. 현실은 리명박보수당국의 《북풍》 조작책동이 최악의 위기에 처한 자들, 죽어가는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고 그러한 시련연극으로는 결코 파멸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리명박당의 《북풍》 조작은 오히려 더 큰 《반리명박, 반(새누리당)》폭풍을 몰아올것이며 분노한 민심은 역적패당을 단호히 매장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윤현주

위기모면을 위한 단말마적발악

이런 모략소동은 그 필사적인 몸부림에 불과하다. 리명박패당은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있는척 하면서 그의 《인도적처리》니 뭐니 하지만 것이야말로 저들의 흉심을 가리우기 위한 철폐된 꾀병이다. 그 속이 얼마나 뻘뻘하면 내외신들까지 리명박의 《탈북자복송반대》 모략소동에 대해 선거와 관련한 《대내외처치》이라고 평하고있는가. 동족대결과 반인민적악정으로 립종의 운명에 처한 리명박당이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 잡는 격으로 《탈북자》소동에 매달려 궁지에서 벗어나보려는 단말마적발악이다. 지금 남조선은 경제와 민생파탄으로 인민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고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리명박패당을 저주하며 목숨을 끊거나 남조선에 떠나고있으며 그가운데는 북에서 유인람치책들을 드러낸 사람들도 있다. 리명박당은 민심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으며 미친개처럼 아무나 막 물어메치고있다.

이런 모략소동은 그 필사적인 몸부림에 불과하다. 리명박패당은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있는척 하면서 그의 《인도적처리》니 뭐니 하지만 것이야말로 저들의 흉심을 가리우기 위한 철폐된 꾀병이다. 그 속이 얼마나 뻘뻘하면 내외신들까지 리명박의 《탈북자복송반대》 모략소동에 대해 선거와 관련한 《대내외처치》이라고 평하고있는가. 동족대결과 반인민적악정으로 립종의 운명에 처한 리명박당이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 잡는 격으로 《탈북자》소동에 매달려 궁지에서 벗어나보려는 단말마적발악이다. 지금 남조선은 경제와 민생파탄으로 인민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고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리명박패당을 저주하며 목숨을 끊거나 남조선에 떠나고있으며 그가운데는 북에서 유인람치책들을 드러낸 사람들도 있다. 리명박당은 민심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으며 미친개처럼 아무나 막 물어메치고있다.

이런 모략소동은 그 필사적인 몸부림에 불과하다. 리명박패당은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있는척 하면서 그의 《인도적처리》니 뭐니 하지만 것이야말로 저들의 흉심을 가리우기 위한 철폐된 꾀병이다. 그 속이 얼마나 뻘뻘하면 내외신들까지 리명박의 《탈북자복송반대》 모략소동에 대해 선거와 관련한 《대내외처치》이라고 평하고있는가. 동족대결과 반인민적악정으로 립종의 운명에 처한 리명박당이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 잡는 격으로 《탈북자》소동에 매달려 궁지에서 벗어나보려는 단말마적발악이다. 지금 남조선은 경제와 민생파탄으로 인민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고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리명박패당을 저주하며 목숨을 끊거나 남조선에 떠나고있으며 그가운데는 북에서 유인람치책들을 드러낸 사람들도 있다. 리명박당은 민심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으며 미친개처럼 아무나 막 물어메치고있다.

이런 모략소동은 그 필사적인 몸부림에 불과하다. 리명박패당은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있는척 하면서 그의 《인도적처리》니 뭐니 하지만 것이야말로 저들의 흉심을 가리우기 위한 철폐된 꾀병이다. 그 속이 얼마나 뻘뻘하면 내외신들까지 리명박의 《탈북자복송반대》 모략소동에 대해 선거와 관련한 《대내외처치》이라고 평하고있는가. 동족대결과 반인민적악정으로 립종의 운명에 처한 리명박당이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 잡는 격으로 《탈북자》소동에 매달려 궁지에서 벗어나보려는 단말마적발악이다. 지금 남조선은 경제와 민생파탄으로 인민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고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리명박패당을 저주하며 목숨을 끊거나 남조선에 떠나고있으며 그가운데는 북에서 유인람치책들을 드러낸 사람들도 있다. 리명박당은 민심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으며 미친개처럼 아무나 막 물어메치고있다.

우리의 총대는 동서치 않는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린 리명박역적패당의 특대형도발행위에 접한 우리 로동적위대인들분노는 하늘에 닿았다. 민족의 대국상에 대해 슬퍼하지는 못할망정 동족의 아픈 가슴에 칼질을 하고 제와 야합하여 반공화국핵전쟁연습을 벌리는것도 모자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조상화들의 아래우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글짜까지 써붙이는 천

하무도의 망랑짓을 일삼은 역적패당이야말로 전대미문의 히스터리전신병자, 인간리탈을 쓴 짐승의 무리들이다. 천벌을 받아 이미 저승에 갔어야 할 역적무리들이 한 지맥으로 잇닿은 이 강도에 살아숨쉬고있다는것자체가 비극이 아닐수 없다. 지금 전체 우리 로동적위대인들은 인간도물들을 총대

를 기다리고있다. 한다면 하는것이 백두산강군의 기질을 지닌 우리 로동적위대인들이다. 우리 로동적위대인들은 만장약된 복수의 감정을 화산처럼 폭발시켜 우리의 존엄에 불질을 해댄 불한당들에게 진짜 총대방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야말것이다. 평양326전선공장 로동자리주성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리명박패당이 《탈북자복송》 문제를 걸고 전례없는 모략소동을 벌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월 2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리명박패당은 《탈북자》수십명이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복송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면서 《북송중지》니 뭐니 하고 열을 올리고있다. 리명박역도와 괴뢰통일부장관 류유익, 괴뢰외교보상부, 《새누리당》 등 보수파계리들은 그 무슨 《난

조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리명박패당의 모략소동을 규탄

《탈북자》수십명이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복송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면서 《북송중지》니 뭐니 하고 열을 올리고있다. 리명박역도와 괴뢰통일부장관 류유익, 괴뢰외교보상부, 《새누리당》 등 보수파계리들은 그 무슨 《난

《탈북자》수십명이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복송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면서 《북송중지》니 뭐니 하고 열을 올리고있다. 리명박역도와 괴뢰통일부장관 류유익, 괴뢰외교보상부, 《새누리당》 등 보수파계리들은 그 무슨 《난

《탈북자》수십명이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복송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면서 《북송중지》니 뭐니 하고 열을 올리고있다. 리명박역도와 괴뢰통일부장관 류유익, 괴뢰외교보상부, 《새누리당》 등 보수파계리들은 그 무슨 《난

《탈북자》수십명이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복송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면서 《북송중지》니 뭐니 하고 열을 올리고있다. 리명박역도와 괴뢰통일부장관 류유익, 괴뢰외교보상부, 《새누리당》 등 보수파계리들은 그 무슨 《난



리명박 역적패당의 퇴진을 요구하고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지금 남조선에서는 동족을 반대하는 위협천만한 전쟁연습의 총포소리가 그칠새 없고 전쟁화약내가 질게 감돌고있다. 공화국의 강력한 경고와 온 겨레의 평화지향에 도전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전쟁불장난소동과 역적패당의 새로운 특대형도발행위로 말미암아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는 다치면 더러질 것 한 최악의 위기국면에 빠져들고있다. 돌이켜보면 리명박패당은 지금까지 북남관계문제에서 그 무슨 《진정성》에 대해 입버릇처럼 외워왔다. 취임 4년을 맞은 2월말에도 리명박은 《특별기자회견》에서 《북이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맞을것》이니 뭐니 하는 낮간지러운 소리를 하였다. 역도가 《신년국정특별연설》이라는에서 《기회의 창》이요, 《상호불신해소》요 하며 《북의 진정성있는 태도》에 대해 떠들어댄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리명박보수당국의 《진정성》타령은 북남관계과괴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대결정책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했다. 역적패당은 지금까지 《진정성》을 외치면서 북남관계과괴의 한길로 내달려왔다. 《진정성있는 대화》니, 《가

《진정성》을 너껴리고 돌아앉아서 그 무슨 《급변사태》를 유도하고 《체제전복》을 이루어보려는 얼빠진 개꿈을 꾸며 《기다리는 전략》으로 집권 4년을 흘려보내었다. 리명박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은 지난해말 민족의 대국상에 절정에 이르렀다. 민족적량심과 초보적인 도의도 모르는 역적패당은 대국상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와 행정부, 남조선전공과 경찰에 《비상경계령》, 《비상근무령》을 내려 피눈물을 흘리고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들이치며 《북지도부와 주민들이 대용》을 부르짖으면서 감히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흔들어서보려고 어리석게 늘어났다. 이렇듯 《진정성》의 간판뒤에서 국도의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려온것이 리명박패당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은 자신의 《진정성》에 진정으로 결여된것이 무엇인지 반성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정당과 리행의 다짐이 빠진채 《진정성》을 호소하는것이야말로 트집잡기》라며 보수당국을 강력히 성토해왔다.

《진정성》을 너껴리고 돌아앉아서 그 무슨 《급변사태》를 유도하고 《체제전복》을 이루어보려는 얼빠진 개꿈을 꾸며 《기다리는 전략》으로 집권 4년을 흘려보내었다. 리명박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은 지난해말 민족의 대국상에 절정에 이르렀다. 민족적량심과 초보적인 도의도 모르는 역적패당은 대국상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와 행정부, 남조선전공과 경찰에 《비상경계령》, 《비상근무령》을 내려 피눈물을 흘리고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들이치며 《북지도부와 주민들이 대용》을 부르짖으면서 감히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흔들어서보려고 어리석게 늘어났다. 이렇듯 《진정성》의 간판뒤에서 국도의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려온것이 리명박패당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은 자신의 《진정성》에 진정으로 결여된것이 무엇인지 반성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정당과 리행의 다짐이 빠진채 《진정성》을 호소하는것이야말로 트집잡기》라며 보수당국을 강력히 성토해왔다.

《진정성》을 너껴리고 돌아앉아서 그 무슨 《급변사태》를 유도하고 《체제전복》을 이루어보려는 얼빠진 개꿈을 꾸며 《기다리는 전략》으로 집권 4년을 흘려보내었다. 리명박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은 지난해말 민족의 대국상에 절정에 이르렀다. 민족적량심과 초보적인 도의도 모르는 역적패당은 대국상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와 행정부, 남조선전공과 경찰에 《비상경계령》, 《비상근무령》을 내려 피눈물을 흘리고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들이치며 《북지도부와 주민들이 대용》을 부르짖으면서 감히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흔들어서보려고 어리석게 늘어났다. 이렇듯 《진정성》의 간판뒤에서 국도의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려온것이 리명박패당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은 자신의 《진정성》에 진정으로 결여된것이 무엇인지 반성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정당과 리행의 다짐이 빠진채 《진정성》을 호소하는것이야말로 트집잡기》라며 보수당국을 강력히 성토해왔다.

《진정성》을 너껴리고 돌아앉아서 그 무슨 《급변사태》를 유도하고 《체제전복》을 이루어보려는 얼빠진 개꿈을 꾸며 《기다리는 전략》으로 집권 4년을 흘려보내었다. 리명박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은 지난해말 민족의 대국상에 절정에 이르렀다. 민족적량심과 초보적인 도의도 모르는 역적패당은 대국상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와 행정부, 남조선전공과 경찰에 《비상경계령》, 《비상근무령》을 내려 피눈물을 흘리고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들이치며 《북지도부와 주민들이 대용》을 부르짖으면서 감히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흔들어서보려고 어리석게 늘어났다. 이렇듯 《진정성》의 간판뒤에서 국도의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려온것이 리명박패당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은 자신의 《진정성》에 진정으로 결여된것이 무엇인지 반성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정당과 리행의 다짐이 빠진채 《진정성》을 호소하는것이야말로 트집잡기》라며 보수당국을 강력히 성토해왔다.

《진정성》을 너껴리고 돌아앉아서 그 무슨 《급변사태》를 유도하고 《체제전복》을 이루어보려는 얼빠진 개꿈을 꾸며 《기다리는 전략》으로 집권 4년을 흘려보내었다. 리명박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은 지난해말 민족의 대국상에 절정에 이르렀다. 민족적량심과 초보적인 도의도 모르는 역적패당은 대국상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와 행정부, 남조선전공과 경찰에 《비상경계령》, 《비상근무령》을 내려 피눈물을 흘리고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들이치며 《북지도부와 주민들이 대용》을 부르짖으면서 감히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흔들어서보려고 어리석게 늘어났다. 이렇듯 《진정성》의 간판뒤에서 국도의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려온것이 리명박패당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은 자신의 《진정성》에 진정으로 결여된것이 무엇인지 반성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정당과 리행의 다짐이 빠진채 《진정성》을 호소하는것이야말로 트집잡기》라며 보수당국을 강력히 성토해왔다.

《진정성》을 너껴리고 돌아앉아서 그 무슨 《급변사태》를 유도하고 《체제전복》을 이루어보려는 얼빠진 개꿈을 꾸며 《기다리는 전략》으로 집권 4년을 흘려보내었다. 리명박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은 지난해말 민족의 대국상에 절정에 이르렀다. 민족적량심과 초보적인 도의도 모르는 역적패당은 대국상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와 행정부, 남조선전공과 경찰에 《비상경계령》, 《비상근무령》을 내려 피눈물을 흘리고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들이치며 《북지도부와 주민들이 대용》을 부르짖으면서 감히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흔들어서보려고 어리석게 늘어났다. 이렇듯 《진정성》의 간판뒤에서 국도의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려온것이 리명박패당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은 자신의 《진정성》에 진정으로 결여된것이 무엇인지 반성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정당과 리행의 다짐이 빠진채 《진정성》을 호소하는것이야말로 트집잡기》라며 보수당국을 강력히 성토해왔다.

《진정성》을 너껴리고 돌아앉아서 그 무슨 《급변사태》를 유도하고 《체제전복》을 이루어보려는 얼빠진 개꿈을 꾸며 《기다리는 전략》으로 집권 4년을 흘려보내었다. 리명박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은 지난해말 민족의 대국상에 절정에 이르렀다. 민족적량심과 초보적인 도의도 모르는 역적패당은 대국상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와 행정부, 남조선전공과 경찰에 《비상경계령》, 《비상근무령》을 내려 피눈물을 흘리고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들이치며 《북지도부와 주민들이 대용》을 부르짖으면서 감히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흔들어서보려고 어리석게 늘어났다. 이렇듯 《진정성》의 간판뒤에서 국도의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려온것이 리명박패당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은 자신의 《진정성》에 진정으로 결여된것이 무엇인지 반성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정당과 리행의 다짐이 빠진채 《진정성》을 호소하는것이야말로 트집잡기》라며 보수당국을 강력히 성토해왔다.

역적패당의 《진정성》은 대결과 전쟁이다

《진정성》을 너껴리고 돌아앉아서 그 무슨 《급변사태》를 유도하고 《체제전복》을 이루어보려는 얼빠진 개꿈을 꾸며 《기다리는 전략》으로 집권 4년을 흘려보내었다. 리명박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은 지난해말 민족의 대국상에 절정에 이르렀다. 민족적량심과 초보적인 도의도 모르는 역적패당은 대국상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와 행정부, 남조선전공과 경찰에 《비상경계령》, 《비상근무령》을 내려 피눈물을 흘리고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들이치며 《북지도부와 주민들이 대용》을 부르짖으면서 감히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흔들어서보려고 어리석게 늘어났다. 이렇듯 《진정성》의 간판뒤에서 국도의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려온것이 리명박패당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은 자신의 《진정성》에 진정으로 결여된것이 무엇인지 반성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정당과 리행의 다짐이 빠진채 《진정성》을 호소하는것이야말로 트집잡기》라며 보수당국을 강력히 성토해왔다.

《진정성》을 너껴리고 돌아앉아서 그 무슨 《급변사태》를 유도하고 《체제전복》을 이루어보려는 얼빠진 개꿈을 꾸며 《기다리는 전략》으로 집권 4년을 흘려보내었다. 리명박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은 지난해말 민족의 대국상에 절정에 이르렀다. 민족적량심과 초보적인 도의도 모르는 역적패당은 대국상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와 행정부, 남조선전공과 경찰에 《비상경계령》, 《비상근무령》을 내려 피눈물을 흘리고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들이치며 《북지도부와 주민들이 대용》을 부르짖으면서 감히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흔들어서보려고 어리석게 늘어났다. 이렇듯 《진정성》의 간판뒤에서 국도의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려온것이 리명박패당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은 자신의 《진정성》에 진정으로 결여된것이 무엇인지 반성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정당과 리행의 다짐이 빠진채 《진정성》을 호소하는것이야말로 트집잡기》라며 보수당국을 강력히 성토해왔다.

《진정성》을 너껴리고 돌아앉아서 그 무슨 《급변사태》를 유도하고 《체제전복》을 이루어보려는 얼빠진 개꿈을 꾸며 《기다리는 전략》으로 집권 4년을 흘려보내었다. 리명박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은 지난해말 민족의 대국상에 절정에 이르렀다. 민족적량심과 초보적인 도의도 모르는 역적패당은 대국상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와 행정부, 남조선전공과 경찰에 《비상경계령》, 《비상근무령》을 내려 피눈물을 흘리고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들이치며 《북지도부와 주민들이 대용》을 부르짖으면서 감히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흔들어서보려고 어리석게 늘어났다. 이렇듯 《진정성》의 간판뒤에서 국도의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려온것이 리명박패당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은 자신의 《진정성》에 진정으로 결여된것이 무엇인지 반성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정당과 리행의 다짐이 빠진채 《진정성》을 호소하는것이야말로 트집잡기》라며 보수당국을 강력히 성토해왔다.

《진정성》을 너껴리고 돌아앉아서 그 무슨 《급변사태》를 유도하고 《체제전복》을 이루어보려는 얼빠진 개꿈을 꾸며 《기다리는 전략》으로 집권 4년을 흘려보내었다. 리명박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은 지난해말 민족의 대국상에 절정에 이르렀다. 민족적량심과 초보적인 도의도 모르는 역적패당은 대국상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와 행정부, 남조선전공과 경찰에 《비상경계령》, 《비상근무령》을 내려 피눈물을 흘리고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들이치며 《북지도부와 주민들이 대용》을 부르짖으면서 감히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흔들어서보려고 어리석게 늘어났다. 이렇듯 《진정성》의 간판뒤에서 국도의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려온것이 리명박패당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은 자신의 《진정성》에 진정으로 결여된것이 무엇인지 반성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정당과 리행의 다짐이 빠진채 《진정성》을 호소하는것이야말로 트집잡기》라며 보수당국을 강력히 성토해왔다.

《진정성》을 너껴리고 돌아앉아서 그 무슨 《급변사태》를 유도하고 《체제전복》을 이루어보려는 얼빠진 개꿈을 꾸며 《기다리는 전략》으로 집권 4년을 흘려보내었다. 리명박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은 지난해말 민족의 대국상에 절정에 이르렀다. 민족적량심과 초보적인 도의도 모르는 역적패당은 대국상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와 행정부, 남조선전공과 경찰에 《비상경계령》, 《비상근무령》을 내려 피눈물을 흘리고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들이치며 《북지도부와 주민들이 대용》을 부르짖으면서 감히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흔들어서보려고 어리석게 늘어났다. 이렇듯 《진정성》의 간판뒤에서 국도의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려온것이 리명박패당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은 자신의 《진정성》에 진정으로 결여된것이 무엇인지 반성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정당과 리행의 다짐이 빠진채 《진정성》을 호소하는것이야말로 트집잡기》라며 보수당국을 강력히 성토해왔다.

《진정성》을 너껴리고 돌아앉아서 그 무슨 《급변사태》를 유도하고 《체제전복》을 이루어보려는 얼빠진 개꿈을 꾸며 《기다리는 전략》으로 집권 4년을 흘려보내었다. 리명박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은 지난해말 민족의 대국상에 절정에 이르렀다. 민족적량심과 초보적인 도의도 모르는 역적패당은 대국상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와 행정부, 남조선전공과 경찰에 《비상경계령》, 《비상근무령》을 내려 피눈물을 흘리고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들이치며 《북지도부와 주민들이 대용》을 부르짖으면서 감히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흔들어서보려고 어리석게 늘어났다. 이렇듯 《진정성》의 간판뒤에서 국도의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려온것이 리명박패당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은 자신의 《진정성》에 진정으로 결여된것이 무엇인지 반성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정당과 리행의 다짐이 빠진채 《진정성》을 호소하는것이야말로 트집잡기》라며 보수당국을 강력히 성토해왔다.

《진정성》을 너껴리고 돌아앉아서 그 무슨 《급변사태》를 유도하고 《체제전복》을 이루어보려는 얼빠진 개꿈을 꾸며 《기다리는 전략》으로 집권 4년을 흘려보내었다. 리명박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은 지난해말 민족의 대국상에 절정에 이르렀다. 민족적량심과 초보적인 도의도 모르는 역적패당은 대국상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와 행정부, 남조선전공과 경찰에 《비상경계령》, 《비상근무령》을 내려 피눈물을 흘리고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들이치며 《북지도부와 주민들이 대용》을 부르짖으면서 감히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흔들어서보려고 어리석게 늘어났다. 이렇듯 《진정성》의 간판뒤에서 국도의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려온것이 리명박패당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은 자신의 《진정성》에 진정으로 결여된것이 무엇인지 반성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정당과 리행의 다짐이 빠진채 《진정성》을 호소하는것이야말로 트집잡기》라며 보수당국을 강력히 성토해왔다.

《진정성》을 너껴리고 돌아앉아서 그 무슨 《급변사태》를 유도하고 《체제전복》을 이루어보려는 얼빠진 개꿈을 꾸며 《기다리는 전략》으로 집권 4년을 흘려보내었다. 리명박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은 지난해말 민족의 대국상에 절정에 이르렀다. 민족적량심과 초보적인 도의도 모르는 역적패당은 대국상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와 행정부, 남조선전공과 경찰에 《비상경계령》, 《비상근무령》을 내려 피눈물을 흘리고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들이치며 《북지도부와 주민들이 대용》을 부르짖으면서 감히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흔들어서보려고 어리석게 늘어났다. 이렇듯 《진정성》의 간판뒤에서 국도의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려온것이 리명박패당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은 자신의 《진정성》에 진정으로 결여된것이 무엇인지 반성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정당과 리행의 다짐이 빠진채 《진정성》을 호소하는것이야말로 트집잡기》라며 보수당국을 강력히 성토해왔다.

전쟁광신자의 부질없는 광기

2월 21일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 김관진은 《방위태세 현장점검》의 미명하에 남조선군 1군사령부와 18전투비행단, 해군 1함대 등 동부전선 륙, 해, 공군부대들을 찾아가 그 누구의 《내부결속차원의 도발》이니, 《4월 도발가능성》이니 뭐니 하면서 전쟁열을 고취하였다. 그는 《힘을 과시할 가능성》이니 뭐니 하며 무엄하게도 공화국의 최고주권을 모독하는 망발도 거러낌없이 내뱉었다. 이보다 앞서 20일 서해 해상에서의 포실탄사격때에는 합동참모본부 서취통제실에 나타나 《대비태세》를 보고받으면서 《북이 도발하면 현장 지휘관들이 우에 묻지 말고 알아서 사격하라.》는 폭언을 늘어놓았다. 하루강자지 범 무서운줄 모르는 격의 망동이 아닐수 없다. 입에서 구멍이 나가는지 무엇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합부로 악담질을 해낸 김관진의 망동은 공화국의 최고주권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서 우리 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오는 4월은 공화국에서 민족최대의 명절을 맞는 의의깊은 달이다. 뜻깊은 이 달을 맞으며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강성부흥의 전진기를 열기 위해 세월을 앞당기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김관진이 그 무슨 《4월 도발가능성》을 떠든것은 푸른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것과 같은 억지개변이고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도발이다.

평도자와 인민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혼연일체를 이룬 공화국은 이며 여러차례에 걸쳐 자기의 최고주권을 건드리는자는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심멸적타격을 안길것이라고 경고한다. 전쟁열에 들떠 리성을 잃은 나머지 김관진은 자기의 호전적격기가 어떤 비참한 대가를 치를것인지 아직 상상도 못하고있는것 같다. 《묻지 말고 사격》해서 저들한테 돌아올것은 불바다이고 개죽음뿐이다. 김관진이 속대우에 올라선 민중이마냥 허장성세하면서 공화국의 무자비한 초강경대응으로 잔혹 공포에 질려있는 남조선군의 저조한 사기를 어떻게 하나 추세워 복침전쟁연습에 내몰아보려 하지만 그것은 한갓 부질없는짓이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어있다. 이러한 긴장국면은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함께 친미사대, 동족에 대한 불신감과 체질화한 김관진과 같은 대결광신자, 외세의 전쟁사환군들의 무조건 대결소동에 의해 조래된것이다. 대양건너 지구의 반대쪽도 아닌 공화국의 교양에서 민족의 최고주권을 건드리며 전쟁의 불질을 터뜨리기 위해 분별없이 날뛰는 김관진과 같은 호전광들은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다.

김음철

역적패당에게 차례질것은 비참한 종말뿐이다. 《적개심을 불태우며 이를 갈면서 속을 썩였다.》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까지도 응징해야 한다.》 《느리니 뭐니 하고 허스레리적광기를 부리며 반공화국도발소동을 미친듯이 벌렸다.》 남조선도처에 널려있는 괴뢰군호전광들에게 우리의 최고주권과 체제를 핏뜀는 표적까지 만들어놓고 총탄을 쏘아대게 한 친우에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를 저지른 주범도 바로 김관진역적이다. 특히 이자는 리명박역도와 한짝이 되어 민족의 대국상을 모독하고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내대는 극악무도한 대역죄를 저지른 친하에 배후패턴이면서 한하를 이고 살수 없는 민족의 원수이다. 외세에는 아부하고 동족에게는 총칼을 내대는 김관진역적은 최근에 막대한 괴뢰군부력을 동원하여 조선서해 5개 섬을 비롯한 우리와 립접한 지역들에서 미제

법원의 반통일적인 판결을 규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가 법원의 부당한 반통일적인 판결을 규탄하여 2월 23일 평결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른바 간첩단사건인 《일진회사건》으로 구속한 통일운동가들에게 징역형을 비롯하여 중형을 선고한데 대해 폭로하였다. 리명박 《정권》의 정치시너로 전락되어 반민족, 반통일적인 판결을 내린 법원의 죄행을 강력히 성토했다.

북남관계를 막아온 장벽들을 허물라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2월 25일 사설에서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철회할것을 남조선당국에 요구하였다. 신문은 남측이 조선반도 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법원이 《일진회》의 조직실체가 없음을 이미 확인하고서도 《북공작원》과 회합하였다. 《자유민주주의질서에 해악을 끼친 자들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원의 사진 및 자료를 놓고 애국인사들을 간첩으로 몰아대는것은 파쇼적행위라고 성

《선거》를 노린 계획적인 탄압소동

최근 남조선에서 진보세력에 대한 보수당국의 탄압책동이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지난 1월 남조선의 정보원과 경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회소속 교원들의 집과 사무실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린데 이어 2월에 들어서는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성원들의 집과 사무실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하였다. 보수패당은 련이어 진보적인 인터넷언론인 《자유진보》의 대표를 체포하고 가택압수수색을 벌리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지난기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주장하며 북과 남사이의 협력과 교류,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마련과 전쟁연습반대 투쟁을 벌려왔으며 힘있는 언론활동으로 6.15시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과 교류추진 해온 이 단체들과 인사들에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한반도 평화실현 각개 공동선언

수세력의 융흥한 책동은 최근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탈북자》소동에서도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를 비롯한 극우보수분자들이 련이 나서서 《국제구벌에의 해 처리》하라느니 뭐니 하며 목에 피대를 돌리는가 하면 《단식통성》이라는 해피망축한 소동까지 벌어지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말도 되지 않는 《탈북자》문제를 결코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는것도 결국은 남조선사회에 동족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 보수세력의 환심을 얻어 《선거》에서 지지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이다. 불순한 목적을 가진 남조선보수패당의 이와 같은 탄압과 모략소동은 남조선사회

대규모복침전쟁연습을 견결히 반대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2월 27일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의 대규모복침전쟁연습을 견결히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역적패당이 남강도 미제와 야합하여 또다시 우리 공화국을 파괴으로 삼은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규탄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해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는데 대해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준렘히 단죄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반공화국전쟁책동이 가져올 엄청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무모한 복침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특히 남조선괴뢰당국은 미국의 범죄적인 대조선침략책동에 추종해나서는것은 민족의 념원을 짓밟고 북남관계 발전을 해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범죄행위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미국의 부질없는 불장난에 충추지 말아야 할것이다.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공격연습이다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유명재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발광적인 복침전쟁연습이 개시될것과 관련하여 2월 27일 자유민주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남조선미국 《련합군사령부》가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명백히 공격연습이라고 단죄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평 통 사 성 원 이 주 장 하지만 전전전과 국지전, 그 누구의 《금번사태》를 가상한 이번 군사연습은 북의 최고주권을 건드리고 방대한 무력을 북으로 침투시키는것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명백히 공격연습이라고 그는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앞에서는 북과의 《대화》를 운운하고



복침전쟁연습의 중지를 요구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이 2월 28일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의 복침전쟁연습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제와 남조선 호전광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복침전쟁연습을 벌려놓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호전광들의 무모한 복침전쟁책동으로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이 고조되고있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대화》를 운운하며 복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리명박 《정부》의 진화 속성이 과연 무엇인가고 반문하였다. 집권기간 겨레의 통일념을 짓밟고 남북관계를 파란내고도 모자라 복침전쟁연습으로 조선반도긴장을 고조시키는 리명박 《정부》의 반민족적, 반통일적행위는 민족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미제와 남조선 호전광들이 복침전쟁연습으로 북을 놀래울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으며 민족의 통일념은 절대로 막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리명박 《정부》가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위험이 과연 무엇인가고 반문하였다. 본사기자

반역《정권》의 만고죄악을 고발한다 (4)

전쟁 불구름을 몰아오는 호전 《정권》

《작전계획》으로 완성하려 한다고 평한것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국도의 대결관념에 사로잡혀 통치활동의 첫 시작을 어떻게 맨 남조선집권자는 2009년에만도 미국과 결탁하여 《키리졸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합동군사연습을 무려 40여차례(2008년의 1.3배) 벌려놓았으며 남조선군 단독훈련도 300여차례(2008년의 1.2배)나 강행하였다. 복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라는 남조선당국의 범죄적책동은 모략적인 합선첨몰사건을 계기로 절정에 달하였다. 합선첨몰사건의 모략적진

한강성

내 조국의 자랑 선군 12경 (1)

선군12경은 조국의 장쾌함과 아름다움을 열두가지로 나누어 명명한 경치이다.

① 백두산의 해돋이
백두산의 해돋이는 백두산의 일만경치와 선군12경에서 제일가는 경치이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온 심장에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으로 투지와 용맹을 백배해주는 백두산의 해돋이는 경애하는 김정은일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그대로 어려있는 선군해돋이이다.

이른새벽의 어두운 구름속에서 한점의 새빨간 불꽃이 튀어올라 점차 붉은선으로 굵게 퍼져오르면서 잠간 사이에 구름때를 뒤버려놓고 끝없는 대지와 교원의 기이한 절벽들과 천지의 검푸른 수면을 하나의 진홍빛으로 물들여 장쾌함과 신비함의 절정을 이루게 한다.

② 다박술초소의 설경
다박술초소의 설경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푸른 물에 잠긴 조국을 일떠세우시려고 다박술초소의 병사들을 찾으시어 선군의 의지를 뚜렷이 피시하시기로 하여 승업하고 정답게 불려오지 않는 경치이다. 붉은 노을이 온 대지를 물들이는 1월의 아침 언저리 한모습을 자랑하는 다박술의 푸른숲과 흰 눈의 순결함이 그대로 초소군인들의 불굴의 모습에 어울려 선군의 기상으로 펼쳐지고있으며 미래에 대한 낙관으로 유다란 감흥을 불러 일으킨다.

③ 절령의 철쭉
철령의 철쭉은 경애하는

3월의 절기에는 경칩과 춘분이 있다. 경칩은 우수와 춘분사이에는 절기로써 양력으로는 3월 5일경, 음력으로는 2월 2일경에 있다. 경칩은 겨울 동안 땅속에서 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예로부터 이 계절에 사람들은 겨울추위를 이겨낸 보람을 한껏 느끼면서 그해의 앞날 결실을 위해 건강, 청결, 풍년 등을 기원하였다. 경칩날에 흙을 만지는 일을 하면 땅이 없고 빈대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 사람들은 흙물을 풀어 집의 벽에 바르거나 흙으로 담을 쌓고도 하였으며 재를 물에 타서 그곳에 닭아방의 네귀에 놓아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겨울의 목은 것을 털어버리고 마울과 집, 몸가짐 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였다.

농사에 항상 관심을 돌려온 농민들은 경칩날에 보리밭이 돌아나오는 것을 보고 그해의 흉풍을 예측하였는데 그것은 립춘날에 보리뿌리를 보고 그해 농사를 가늠해



백두산의 해돋이

장군님께서 철령을 넘나드리며 최전연부대들을 찾으시어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신 선군실력이 담겨져있는 경치이다. 강원도 고산군과 회양군경계에 있는 아흔아홉굴이 나 된다. 가파로운 철령의 비랑길주변은 봄에는 철쭉꽃으로 붉게 물들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실록을 더욱 뜨겁게 새겨주는듯 하여 유난히 깊은 정서를 자아내고있다.

④ 장자강의 불야경
장자강의 불야경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영도밑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전변시

킨 강계정신의 생활력이 그대로 담겨져있는 경치이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잊지 못할 그 나날들을 추억하며 밤하늘의 별무리가 내려앉은 듯 온 강계시의 눈부신 락원의 불빛이 장자강반의 야경에 비겨 신비로운 절경을 이루고 독특한 장관을 펼쳐보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장자강을 찾으시어 지퍼핀 신 강계정신의 불길은 그대로 이곳 인민들의 가슴속에 신평과 투쟁의 불길로 타올라 장쾌한 장자강의 불야경을 펼쳐놓았다.

⑤ 대흥단의 감자꽃바다
대흥단의 감자꽃바다는 우

리 조국을 감자명산지로 만들어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이 비껴있는 사회주의 선경이다. 6월말부터 피기 시작한 감자꽃은 7월중순과 말경에는 일망무제한 온대 홍단밭을 하얗게 뒤덮고 흰과도 설레이며 넘실거리는 감자꽃밭의 아득한 장쾌함과 황홀경은 배일을 대한 희망과 락관으로 희열을 한껏 느끼게 한다. 대흥단의 감자꽃바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영도로 조국의 북방에 펼쳐진 황홀한 풍경이다.

⑥ 한드레벌의 지평선
한드레벌의 지평선은 조국의 모든 벌을 종합적기

계화를 실현할수 있는 선군시대 사회주의땅으로, 주요알곡산지로 전변시켜 인민들에게 풍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자연계조구상이 담겨져있는 경치이다. 한드레벌 물에 피는 농사지었다는 뽕기밭들을 밀어내고 큰 규모로 정리된 한드레벌의 풍요한 지평선의 장쾌함은 어제와 오늘의 하늘따같은 차이를 가슴후련히 느끼게 한다.

본사기자 김준경

3월의 절기

3월의 절기에는 경칩과 춘분이 있다. 경칩은 우수와 춘분사이에는 절기로써 양력으로는 3월 5일경, 음력으로는 2월 2일경에 있다. 경칩은 겨울 동안 땅속에서 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예로부터 이 계절에 사람들은 겨울추위를 이겨낸 보람을 한껏 느끼면서 그해의 앞날 결실을 위해 건강, 청결, 풍년 등을 기원하였다. 경칩날에 흙을 만지는 일을 하면 땅이 없고 빈대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 사람들은 흙물을 풀어 집의 벽에 바르거나 흙으로 담을 쌓고도 하였으며 재를 물에 타서 그곳에 닭아방의 네귀에 놓아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겨울의 목은 것을 털어버리고 마울과 집, 몸가짐 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였다.

농사에 항상 관심을 돌려온 농민들은 경칩날에 보리밭이 돌아나오는 것을 보고 그해의 흉풍을 예측하였는데 그것은 립춘날에 보리뿌리를 보고 그해 농사를 가늠해

본사기자

⑦ 차는 혈관내막의 지방 침착을 막아 동맥경화, 고혈압, 뇌혈전증 등이 생기기 않게 한다.

⑧ 차는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높여준다.

⑨ 몸가짐과 더불어 효과적이다.

⑩ 로인들에게서 백내장이 생기는것을 막아준다.

⑪ 조혈기관들의 피만드는 기능을 높여준다.

⑫ 차에는 여러가지 미량 원소들이 들어있다.

⑬ 차는 세로의 돌연변이를 막아 암을 예방한다.

⑭ 차에는 비타민E가 많아 노화를 지연시킨다.

본사기자

① 차는 사람들의 정신을 맑게 하여 사색력과 탐구력, 기억력을 높여준다.

② 차는 피로를 풀어주고 물질대사를 촉진시켜 심장혈관계통의 기능을 높여준다.

③ 차는 이삭기를 막는다. 차를 일상적으로 마신 어린이들은 차를 마시지 않은 어린이들에 비하여 이삭기가 60%나 적었다고 한다.

④ 차에는 여러가지 미량 원소들이 들어있다.

⑤ 차는 세로의 돌연변이를 막아 암을 예방한다.

⑥ 차에는 비타민E가 많아 노화를 지연시킨다.

본사기자

① 차는 혈관내막의 지방 침착을 막아 동맥경화, 고혈압, 뇌혈전증 등이 생기기 않게 한다.

② 차는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높여준다.

③ 몸가짐과 더불어 효과적이다.

④ 로인들에게서 백내장이 생기는것을 막아준다.

⑤ 조혈기관들의 피만드는 기능을 높여준다.

⑥ 차에는 여러가지 미량 원소들이 들어있다.

⑦ 차는 세로의 돌연변이를 막아 암을 예방한다.

⑧ 차에는 비타민E가 많아 노화를 지연시킨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제보인 난치나이치로법(난치의 병을 치료하는 고려치로법)을 가리켜 세상사람들은 《신비로운 고려의술》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우리 나라에 풍부한 고려 약자원과 침, 뜸, 부항, 안마 등 독특한 치료법을 리용하여 사람들의 병을 예방치로하는 고려의학은 그 우월성으로 하여 오래전부터 세상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왔다.

공화국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전통의학을 발전시켜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들을 낫게 하는 난치나이치로법을 연구하여 수십년간

인 1980년대에 벌써 세계 의학계의 이목을 끌었다.

공화국의 고려학연구자들은 1970년대말까지만 해도 어린이들의 기관지염이나 어혈이 진 부위를 치료해주는 정도에 머물고있던 난치나이치로법을 새롭게 발전시키는데 달라붙었다. 연구자들은 부항치료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집단을 꾸리고 선

조들이 새은 부항로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것과 함께 치료의 기본수단인 부항단지도 최대한 효과를 낼수 있게 개조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식물이 유효성분을 뽑아 주사하는 리상적인 주사약도 만들어졌다. 이에 토대하여 연구자들은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어렵다고 하는 10여가지의 질병들

을 선택하여 집중적인 연구 사업을 벌려 마침내 난치병 치료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고질병치료에서 효과가 높을 뿐아니라 부작용과 우발증이 없고 로화방에서도 특효있는 주사약에 의한 난치나이치로법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세계의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당시 의학이 발전하였다고 하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조선의 고려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성과와 난치나이치로법에 대한 요청강의까지 진행하였다. 오스트리아, 서

부도이퀼란드(당시), 사우디 아라비아, 스웨리예,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온 의사들과 저명한 학자들은 조선의 고려의학발견 특히 난치나이치로법의 연구완성에 대하여 흥분을 금치 못해하면서 한결같이 조선에 와서 고려의학을 배우고싶다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특히 난치나이치로로 자기 나라의 고위정책이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놀라운 사실을 목격한 오스트리아의 교수, 박사들은 이 치료법은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과학적인 치료법이라고 하면서 공화국의 의료인들에게 오스트리아의 한 종합대학에서 강의도 해주고 실습도 시켜주며 공동 연구사업 등을 하자고 제기

한 평균 7m로 그 모습은 한가롭게 누워 새김질하는 소리와 조제된 고무러의 명장이다.

그는 비천한 출신으로 평원왕(559-590년)때 평강공주와 결혼하였는데 외적이 침입하자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다.

은달은 영양왕(590-618년)때인 590년에 신라에 맺어진 계림현과 죽령서쪽 땅을 되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출전하여 은달산성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은달산성은 총정복도 단양에 위치하고있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이다.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성산(427m)에 쌓은 이 산성은 둘레가 1.5km이고 성벽높이

가 평균 7m로 그 모습은 한가롭게 누워 새김질하는 소리와 조제된 고무러의 명장이다.

그는 비천한 출신으로 평원왕(559-590년)때 평강공주와 결혼하였는데 외적이 침입하자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다.

은달은 영양왕(590-618년)때인 590년에 신라에 맺어진 계림현과 죽령서쪽 땅을 되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출전하여 은달산성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은달산성은 총정복도 단양에 위치하고있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이다.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성산(427m)에 쌓은 이 산성은 둘레가 1.5km이고 성벽높이

본사기자

를 선택하여 집중적인 연구 사업을 벌려 마침내 난치병 치료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고질병치료에서 효과가 높을 뿐아니라 부작용과 우발증이 없고 로화방에서도 특효있는 주사약에 의한 난치나이치로법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세계의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당시 의학이 발전하였다고 하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조선의 고려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성과와 난치나이치로법에 대한 요청강의까지 진행하였다. 오스트리아, 서

부도이퀼란드(당시), 사우디 아라비아, 스웨리예,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온 의사들과 저명한 학자들은 조선의 고려의학발견 특히 난치나이치로법의 연구완성에 대하여 흥분을 금치 못해하면서 한결같이 조선에 와서 고려의학을 배우고싶다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특히 난치나이치로로 자기 나라의 고위정책이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놀라운 사실을 목격한 오스트리아의 교수, 박사들은 이 치료법은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과학적인 치료법이라고 하면서 공화국의 의료인들에게 오스트리아의 한 종합대학에서 강의도 해주고 실습도 시켜주며 공동 연구사업 등을 하자고 제기

한 평균 7m로 그 모습은 한가롭게 누워 새김질하는 소리와 조제된 고무러의 명장이다.

그는 비천한 출신으로 평원왕(559-590년)때 평강공주와 결혼하였는데 외적이 침입하자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다.

은달은 영양왕(590-618년)때인 590년에 신라에 맺어진 계림현과 죽령서쪽 땅을 되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출전하여 은달산성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은달산성은 총정복도 단양에 위치하고있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이다.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성산(427m)에 쌓은 이 산성은 둘레가 1.5km이고 성벽높이

가 평균 7m로 그 모습은 한가롭게 누워 새김질하는 소리와 조제된 고무러의 명장이다.

그는 비천한 출신으로 평원왕(559-590년)때 평강공주와 결혼하였는데 외적이 침입하자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다.

은달은 영양왕(590-618년)때인 590년에 신라에 맺어진 계림현과 죽령서쪽 땅을 되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출전하여 은달산성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은달산성은 총정복도 단양에 위치하고있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이다.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성산(427m)에 쌓은 이 산성은 둘레가 1.5km이고 성벽높이

본사기자

은달은 실재한 인물

은달은 전설속의 인물이 아니라 1400여년전에 실제로 존재한 고무러의 명장이다.

그는 비천한 출신으로 평원왕(559-590년)때 평강공주와 결혼하였는데 외적이 침입하자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다.

은달은 영양왕(590-618년)때인 590년에 신라에 맺어진 계림현과 죽령서쪽 땅을 되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출전하여 은달산성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은달산성은 총정복도 단양에 위치하고있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이다.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성산(427m)에 쌓은 이 산성은 둘레가 1.5km이고 성벽높이

본사기자

회암동굴인 《은달굴》 등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은달산성과 관련한 전설로는 고무러땅을 회복하지 못하고 전사한 은달의 시신이 이곳을 떠나러 하지 않아 평강공주가 《생사의 날이 다 결정났다. 아아, 돌아갑시다.》라고 하며 판을 어루만져서야 판이 움직이었다는 것과 해를 10이 움직이는데 들어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은달굴》 안에서 은달과 평강공주가 지상에서 다하지 못한 사랑을 나누었다는것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영춘마을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보고 《은달은 하루식전에 성을 다 쌓았다는데 너는 여태까지 그것밖에 못했느냐.》고 추궁하며 행동이 굼뜬 사람을 보고는 《은달산성에서는 쉬는 돌(휴식돌)까지 강을 건너 뛰었다는데 너는 뛰지도 못하느냐. 은달의 반이나 따라가라.》고 욕하며 따돌림받

은달은 영양왕(590-618년)때인 590년에 신라에 맺어진 계림현과 죽령서쪽 땅을 되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출전하여 은달산성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은달산성은 총정복도 단양에 위치하고있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이다.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성산(427m)에 쌓은 이 산성은 둘레가 1.5km이고 성벽높이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단편 소설

그후 나는 그 일에 대해 더 생각지 않았고 잊어버렸다.

만 후날 우연히 그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그 모든 일들이 눈앞에 선듯 떠오르며 뜻하지 않은 아픔을 주는것이였다.

돌아보건대 그때 내가 한 말들은 그에 대한 뒤소리의 팔자를 옮긴것이였고 그것을 긍정한것이였다.

그것은 그 말에도 라당성이 있었고 은숙을 만류하자니 그 립장에 설수밖에 없었기때문이었다. 재판에는 은숙을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뜻하지 않은 타격이었다.

남편에게서, 자기가 누구보다 믿고 지켰던 사람에게서 자기를 질시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불리해와 불신을 보았을 때 그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약 (12)

글 배경휘, 그림 김윤일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영욱이 아버지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줄은 몰랐었다. 영욱이 아버지의 생각이 우리 병원의 일부 사람들과 같은 립장이라는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가슴이 비수에 찔리워 평 구멍이 뚫리는 감을 느꼈다.

그 구멍으로 심장의 피가 쏟아져나가고 텅 빈 공허가 깃든것 같았다. ... 이런 허무감, 이런 쓰라림을 맛보자고 천리길을 달려왔던가싶었다.

영욱이 아버지가, 다른 사람도 아닌 영욱이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타격을 줄줄은... 그럴줄은 몰랐었다. 이런 일이 있을줄은...

아마... 영욱이 아버지는... 내가 예초로와서 그랬을것이지만... 그것은 내가 바란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에게 힘을 줄것을 바

나를 힘있게 떠밀어준다면 얼마나 좋으랴.

아, 영욱이 아버지... 어쩌면 당신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나요? 어쩌면... 왜 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주시나요?

울음이 터져나와 더 쓰지 못하겠다. 눈물을 깨물어도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려 글줄이 보이지 않는다. ...》

그 피로움을 그는 혼자 남몰래 묵새겼다. ... 실로 연약하고 부드러운 녀성인 그가 그 처절한 심리적싸움에서 어떻게 디디고 일어설수 있었는지?

결국 나는 본의는 아니지만 자기를 믿고 의지하려는 사람을 등뒤에서 저른 격이 되었다. 그리고도 그를 사랑하고 위해주었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통탄할 일인가.

은숙은 자기의 안락까운 심정을 나에게 내보이며 하지 않았다. 후시 환물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아니, 그는 나를 리해하려고 애쓰면

본사기자

서 나에게서 피로움을 주지 않으려고 모지름했다.

강의하면서도 다심하고 부드러운 그의 마음을, 그 연한 살에 생긴 피호르는 상처를 때늦게나마 내 그때 들어다보았다면 그 후 다시는 그런 아픔을 그에게 주지 않았을것이다.

은숙이가 사래를 만나 굴러 내려오는 바위에 부딪쳐 심한 부상을 입고 그 근방의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다.

(부상? 입원?) 가슴이 찢렁했다. 그렇게 만류하는걸 듣지 않고 그냥 몸을 혹사하며 다니더니 이제는 사고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